

금주의 법구-〈장부경전〉
세월은 덧없이 흘러간다.
부지런히 수행에 힘써라.
오직 열반을 향해서 가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2월 15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 1089호 2016년 3월 23일 수요일

수익사업 본격화 사업부 토대 마련

조계종 중앙종회 205차 임시회서 총무원법 개정

조계종 수익사업을 총괄하는 사업부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는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205차 임시회를 열고 종단 현안에 관한 안건 25개를 상정해 처리했다. 먼저 이번엔 통과된 총무원법 개정안은 조계종 총무원 내 사업부를 신설해 현재까지 재무부가 담당하던 사업관리 업무와 조계종출판사 산하 유동사업부 사업을 이관해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획실장 해일 스님은 “사업부는 직접 운영보다 연구, 관리의 성격이 크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향후 본격적인 수익사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법인 등을 고려하겠다”며 법안 통과를 당부했고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됐다. 다만 사업부 출범 준비 등으로 3개월 유예를 두고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결국 이월을 결의했다. 대각회 특별교구 제정안은 대각회와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사유로 이월됐으며, 교구본사 주지 3인 제한의 지방중정법, 중앙종회의원의 호계원 변화가 가능하게 하는 호계원법도 이월됐다. 해외특별교구의 각 국가별 해외지부 설립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폐기됐다. 이밖에 과천 연주암을 특별분당사찰에서 직영사찰로 전환 지정하는 동의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연주암의 직영사찰 지정은 소속 교구 신성으로 전환되는 첫 사례로 회주인 자승 스님이 33대 총무원장 당시 직영사찰 지정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중앙종회는 동국대 이사후보로 호성 스님 후임에 자광·성무, 보광 스님 후임에 승원·정덕, 일면스님 후임에 일관·환풍 스님을 각각 추천동의했다. 이

이와 함께 종회에서는 중창주의 위법행위 시 권한을 제한하는 사찰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또 신도와 스님으로 구성된 공동장건주의 경우 신도가 공동장건주에 한해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3월 15일 개원, 5개 종법 개정
인사동의안 등 처리, 17일 폐회
종회의원 겸직완화 안건은 이월

또 직할교구 직영사찰 외 타교구 직영사찰의 관리인 임기를 4년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직영사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에서는 관리인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원로회의 의원이 임기만료시 명예의원이 되는 원로회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상정된 종법개정안은 총 9개로 이 중 5개가 통과됐다.

에 앞서 먼저 종관위에서 동국대 이사회로 추천된 법산·정도스님, 세영·성무 스님, 지원·정님 스님(흥천사), 정남(월정사)·원명 스님 등 8명에 대해서는 추천했다.

하지만 종회 개원을 앞두고 불교계 안팎에 논란이 일던 종회의원 겸직금지 축소 종헌 개정안은 결국 이월됐다. 종회에서는 이 종헌 개정안 처리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종회의원 주경 스님은 “종회의원과 총무원 부실장 겸직시 감사와 견제 기능 작동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반대여론을 피력했고, 화림 스님도 “94년 개혁정신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후보자 복수 추천 동의안도 압도 스님 후임에 종호·혜원 스님을 추천동의했으며, 임기가 만료된 감사 경륜스님의 후임에 우하·도민스님을 추천동의했다. 또 중앙종회는 인사심의특별위원회 정도 스님이 사임함에 따라 후임에 성호 스님을 선출했으며, 재심호계위원 노현 스님과 범만 스님 후임에 무상 스님(송광사)과 정현 스님(신흥사), 초심호계위원에 정현 스님 후임에 도현 스님(고은사), 법규위원 경진 스님과 보경 스님 후임에 범광 스님(동화사)과 보경 스님(송광사)을 선출했다.

대표발의자인 초격 스님은 “94년 개혁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권력 분산화를 통해 종단을 안정시키려는 의의였다. 시대가 많이 흘러 전문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찬반 의견에 종회의장 성문 스님은 “결과와 이월”에 대한 의사를 물어

끝으로 일반회계 252억 여원 특별회계 287억 여원을 승인했으며, 한전부지 환수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폐회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관련 해설 3면>



2016조계종 중앙종회 첫 개원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는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205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종단 현안 25개 안건이 상정돼 처리됐다. 특히 총무원 사업부 설치에 관한 총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15일 개회식 모습이다.

“사안별 비판 아닌 근본 대안 제시”

신대승네트워크 3월 26일 창립... 사업 계획 발표

“1994년 종단개혁으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흐릿해진 사명과 사뭇 없이 사라진 비전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이에 한국불교의 혁신의제 실현을 ‘신(新) 대승불교운동’이라 칭하고 시대적 사명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갈 것을 제안한다.”

사 및 공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불교 대전환 아젠다 위원회’는 불교계 시민사회단체 정의평화 불교연대와 협업으로 2018년까지 진행된다. 94년 종단개혁 당시 제시된 5대 지표·10대 과제·22개 사업을 기반으로 현대적 상황을 고려, 발전적이고 거시적인 ‘미래 한국불교의 그랜드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는 사업이다.

서의현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재심판결에 반기를 들며 지난해 10월 발족된 ‘신대승불교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신대승네트워크’로 단체명을 확정하고, △아시아불교 씽크탱크 설립 △신대승 원탁회의 개최 △협업융합미래센터 설립 등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신대승네트워크는 ‘협업융합미래센터’를 신설하고 불교계 여러 단체들과 공간 및 인력 지원, 정보 공유, 정책 및 사업 공동 생산 등 면에서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대승네트워크(공동대표 김성규·전준호·이영철·박병기)는 3월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창단 배경 및 방향, 사업 계획 등을 공개했다. ‘신대승네트워크’는 1994년 개혁에 동참했던 재가불자들이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살아 움직이는 불교를 만들기 위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모으겠

특히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아고라 문화’를 형성하겠다 포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웹-플랫폼 개발 △신대승 e-매거진 창간 △불교계 공동 플랫폼 개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전략사업으로는 ‘아시아불교 씽크탱크’와 ‘한국불교 대전환 아젠다 위원회’ 등이 있다. 한국불교 미래 전략 개발에 집중하는 ‘아시아불교 씽크탱크’는 5개년 전략의제 기획, 신대승운동 모델(경전 근거 강령, 수행법 등) 개발, 94년 종단개혁 지표 및 총무원장의 개혁 수행적도 조

한편 신대승네트워크는 3월 26일 오후 3시 안국역 불교스카우트회관 10층 강당에서 창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출가상담 전화 확대 번호 ‘1666-7987’ 변경 조계종 교육원 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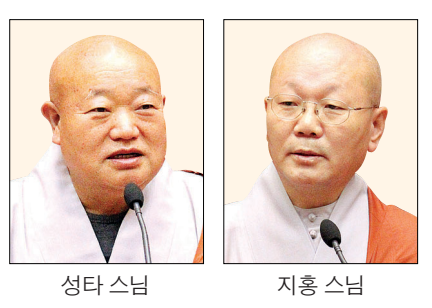
조계종 출가상담 전화번호가 ‘1666-7987’로 변경된다. 시간도 기존 오후 2-5시까지 3시간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확대 운영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지난 2월 19일 신설했던 출가상담 전화번호 ‘1666-7987’로 변경하고 시간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출가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출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간이 확대된 만큼 기존 출가 상담사 가집 스님 이외에도 승선 스님과 교육원 불학연구소 삼임연구원 범우 스님이 시간대 별로 상담에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부제 중에 착신된 전화는 출가 상담사 스님이 다시 전화를 걸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됐다.

이에 대해 교육원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출가상담을 받을 수 있게 기회가 폭이 넓어져서, 보다 많은 분들이 출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호계원장 성타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조계종 종회서 만장일치 선출



성타 스님 지홍 스님

조계종 호계원장에 성타 스님, 포교원장에 지홍 스님이 선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는 3월 15일 제205차 임시총회를 열고 호계원장에 서울 불광사 주지 성타 스님을, 포교원장에 서울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신임 호계원장 성타 스님은 “부족한 소납을 호계원장으로 임명해줘 책임감을 느낀다. 종단 기강을 엄정히하여 종단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지도 바란다”고 말했다.

신임 포교원장 지홍 스님도 “포교 전법 교화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며 “시대 변화에 맞춰 포교를 펼쳐나가는 것이 과제다. 종도들의 많은 바람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1089호 INDEX

5
시방세계
해인사, 합천여고
‘스쿨어택’ 콘서트 현장



14·15
그대는 자비보살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온전한 나를 위한
해인 스님의
따뜻한 응원
해인 저음 | 이영건 그림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저자 해인 스님의 4년 만의 신작)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온전히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해인 저음 | 이영건 그림 | 300쪽 | 값 14,800원

“해민 스님 4년 만의 신작,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삶이라는 여행에서 겪게 되는 힘든 사건은 나를 한번 크게 되돌아보게 하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도 생각하게 하면서 자비심을 일으키게 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 그 일로 인해 지혜와 자비가 발현되지길...
- 해민 두손모아 -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1위
종합순위

교보문고
YES24
인터파크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몇 번을 읽어도 내 인생에 힘이 되는 글귀!”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법보시용으로 좋은 책★ 대량구매는 출판사로 문의 바랍니다. 031-901-8835